

제목	연구 과정에서의 산지니 AI 활용과 그 의의
-----------	--------------------------

인문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자주 부딪힌 어려움은 연구 주제의 설정이나 해석보다도 그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글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텍스트를 읽고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단계까지는 비교적 수월했지만, 이를 연구 계획서나 논문 초안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여러 문제가 반복되었다. 논지의 중심이 흐려지거나, 이미 얘기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는 중복이 발생했고, 중요한 개념이나 분석의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다음 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잦았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 구조를 한눈에 조망하기가 어려워, 글을 쓰면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정 단계에서 다시 드러나며 재작성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연구 일정이 늘어지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인 점검과 반복적인 수정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미 작성한 글을 여러 차례 다시 읽으며 구조를 조정하고 문장을 고치는 방식이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구계획서 초안이나 논문 초반부처럼 방향 설정이 중요한 단계에서는, 부분적인 수정이 전체 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연구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혼란과 정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보조하면서도 사고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산지니 AI를 연구에 활용하게 되었다.

산지니 AI는 단순히 문장을 생성하거나 내용을 대신 작성해 주는 도구라기보다,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조를 정리하고 핵심을 드러내며, 질문과 응답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문서 업로드를 통한 분석·요약·구조화 기능과 대화형 질의응답 방식은 이미 작성한 연구 초안이나 연구 메모를 점검하는 데 적합했으며, 하나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기능적 특징을 바탕으로, 작성 중인 연구계획서 초안이나 논문 일부를 산지니 AI에 입력한 뒤 구조와 논지 전개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각 장과 절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 질문과의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논지 전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설명이나 핵심 개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지점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은 초안 작성-점검-수

정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절차를 여러 문서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활용 방식을 점차 정형화할 수 있었다.

산지니 시와의 대화는 ‘글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보다는, 현재 작성된 텍스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질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구조 점검 단계에서는 각 문단이 수행하는 기능과 전체 논지에서의 위치를 설명하도록 요청했고,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연구를 요약한 텍스트를 입력한 뒤 공통 논점과 차이점, 그리고 연구 공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도출하도록 활용했다. 이러한 대화형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사고 과정을 외부의 시선에서 재검토할 수 있었고, 이는 글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활용한 프롬프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 점검을 위해

“다음은 연구계획서 초안의 일부야. 각 장과 절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연구 질문과의 연결성이 약한 부분이나 논지가 중복되는 지점을 지적해 줘. 또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삭제·이동·보완’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도 함께 제안해 줘.”

이를 통해 글 전체의 흐름을 한 번 더 조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2. 선행연구 정리 단계에서

“아래는 선행연구를 요약한 메모야. 각 연구의 공통 논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공백이 무엇인지 정리해 줘. 연구계획서에서 해당 공백을 어떻게 문제의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간략히 제안해 줘.”

이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문장과 표현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다음 문단에서 핵심 주장과 부연 설명을 구분해 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장황한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한 대안을 3가지 제시해 줘.”

이를 통해 핵심 주장과 설명을 분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논지 자체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 특히 유의했던 점은, 산지니 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인용이 포함된 문

단이나 개념 정의가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원전 텍스트와 대조했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 메모와 비교하며 수정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통해 산지니 시는 사고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연구계획서와 논문 초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초안 작성 이후 전체 구조를 다시 손보는 경우 역시 감소하였다. 수정 과정도 전면적인 재작성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인 수정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글의 완성도 또한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구조와 표현을 정리하는 데 쓰이던 시간을 줄이면서, 텍스트 해석과 논증의 깊이를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집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산지니 시는 연구 자동화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혼란과 정리의 부담을 줄여 주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용 방식은 문학 연구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전반의 연구계획서 작성, 논문 초안 점검, 선행연구 정리 과정에도 충분히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구자가 핵심적인 사고와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